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

어느 날, 남전 스님이 방장의 문을 닫고서 문 밖에서 빙 둘러 재를 뿌리면서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뭔가 말한다면 문을 열겠어."

많은 스님이 한 마디씩 했지만 어느 것도 남전 스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없었다. 그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장천(蒼天, 장천(蒼天))! 남전은 곧 문을 열었다."

南泉便掩卻方丈門 便把灰圍卻僧云 道得即開門 多有人下語 並不契泉意 師云 蒼天蒼天 泉便開門

당시 문을 닫고 재를 뿌리는 풍속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짐작하기에 문을 닫고 재를 뿌리는 것이 그리 경쾌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일장에서 본다면 남전 스님이 문을 닫고 재를 뿌리면서 "한 마디 일러 보라"고 한 것은 "우울하고 어두운 방문을 어떻게 열겠는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장천(蒼天)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푸른 색으로 가득할 때 외치는 감탄사이다. 조주 스님은 다만 "장천, 장천!"이라고 외쳤을 뿐인데, 남전 스님은 문을 활짝 열었다. 장천이라는 대답이 마음에 든 것이다.

장천은 우울하고 어두운 것과 반대되는 상태다. 우울한 사람에게 경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전 스님에게는 이 대답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우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정신 중에서도 장천의 사상이 근본적인 치료로 유도하는 가장 적합한 사상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맑고 깨끗하다. 따라서 본성은 우울하지 않다. 혹 사람이 우울함에 빠져있다면 그것은 정명한 자신의 본성을 잃고 스스로 감정에 휘말려 있어서 그렇다. 우울한 사람을 구하는 일은 우울의 반대 상태인 장천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의 본성대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울함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선적(禪的)인 처방인 것이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 지혜는 도가 아니다. 여기에 뭔가 허물이 있습니까?" 남전 "있다." 조주 "어디에 허물이 있는지 부디 스님께서 말씀 해주십시오." 남전 스님은 조주 스님의 말을 따라서 했다. 남전 "마음은 부처님이 아니다. 지혜는 도가 아니다." 조주 스님은 불속 나가버렸다. 師問南泉云 心不是道智不是道 還有過也無 泉云

뜰 앞의 잣나무이니라

有師云 過在舍廡處 講師道 泉遂舉 師便出去

마음이 부처이고 지혜가 도인 것은 불법의 정론이다. 그런데 마음을 마음이라 하고 지혜를 지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음과 지혜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다. '마음' '지혜' '부처' '도' 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약속에 의한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라는 말 또한 불법의 정론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 지혜는 도가 아니다' 라는 말은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일까? 이 또한 '아니다' 라는 단정이 들어간 것이므로 사람이 또 하나의 허상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은 아니다.

선은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조주 스님이 어디에 허물이 있는나고 묻는 것에 남전 스님은 조주 스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해 말해봄으로써 제자가 틀린 곳을 스스로 알게 해준 것이다. 마지막에 조주 스님이 불속 나가 버린 것이 선

로 사람을 인도해야 비로소 알게 할 것이다." 그때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문승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뜰 앞의 잣나무니라."

문승 "경계로써 사람을 가르치기 마시기 바람니다."

조주 "나는 경계로써 사람을 가르치지 않아."

문승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뜰 앞의 잣나무니라."

師上堂 講衆曰 此事的的 沒量大人 出這裡不得 老僧到滄山 僧問 如何是祖師西來意 滄山云 與我將床來 若是宗師 須以本分事接人 始得 時有僧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 庭前柏樹子 學云 和尚莫將境界示人 師云 我不將境界示人 云下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 庭前柏樹子

달마는 인도 변방 사람이었다. 혹은 서역 월서국 왕자라는 설도 있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온 것은 부처님의 진정한 법문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두고 선문에서는 선(禪)의 중심적 내용을 물을 때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 선의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본분사란 본질에 상통하는 것을 말한다. 조주 선사는 종사라면 사람을 지도할 때 항상

본분사로써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바로 깨달아 들어가서, 공연히 몸통이 아닌 가지나 잎을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사람을 망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과거 위산 스님이 본분사로 사람을 가르치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선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위산 스님은 "나에게 의자를 가져다주게"라 했고, 조주 스님은 "뜰 앞의 잣나무니라"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조주 스님은 분명 잣나무라는 '나무(境界)'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 의도를 탐구하면 된다.

'뜰 앞의 잣나무'는 유명한 화두다. 만약 자신의 참 모습을 알고 싶다면 이 화두를 들고 참구하면 된다. 혹 인생과 우주의 근원을 알고 하는 사람도 이 화두를 들고 수행한다면 틀림없이 어느 날 홀연히 트릴 날이 있을 것이다. 화두는 반드시 풀린다. 불교는 답이 없는 것을 찾으라고 헛된 일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 많은 선사들이 이 화두로 삶의 피곤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으니 이 화두는 바로 가는 지름길이다.

만약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나에게 묻는다면, "빈손으로 온 것을 환영해" 라고 대답할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인간 본성은 원래 맑고 깨끗해 우울하지 않아

선은 구구한 설명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한다

(禪)의 묘미다. 조주 스님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다. 특히 <조주록>에 굳이 실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불속 나가버렸다"고 기록한 것은 여기에 뭔가 뜻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 조주 스님은 선(禪)을 잘 아는 사람이라 남전 스님에게 감사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11개의 선문답은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 휘하에 있으면서 스승과 문답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도를 깨달은 두 선승이 문답한 것이라 남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다만 본 남자가 우둔해 두 선사의 깊은 뜻을 다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다만 참고만 하면 되겠다. 이하는 조주 스님이 남자들을 접화(接化)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본격적으로 내보인 조주 선사의 선문답이다.

조주 스님이 범당에 올라가 대중에게 설법했다. "이 일은 참으로 명백하다. 도량이 큰 인물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일찍이 위산(滄山) 스님에게 갔을 때, 어떤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물었다."

문승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위산 "나에게 의자를 가져다주게."

"단일 종사(宗師)라면 이처럼 본분의 일(本分事)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문 10

육도(六度)를 거듭 밝히다 (1)

다시, "육도는 이룰테면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육도(육바라미)가 육근을 청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육도를 닦고자 하면 당연히 육근을 깨끗이 해야 하고 육근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육적을 항복시켜야 하기 때문이니라.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 생기는 번뇌를 버리면 눈으로 보는 모든 대상을 여의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지므로 보시라 하고, 귀로 들음으로 인해 생기는 번뇌를 여의면 소리의 경계에 끌려 다니지 않으므로 지계라 한다." (다음호 계속)

[원문]

又問曰 如經所說 六波羅密者 亦名六度 所謂布施持戒忍辱精進禪定智慧 今言六根清淨 名爲六波羅密者 若爲通會 又度者 其義云何. 答曰 欲修六度 當淨六根 欲淨六根 先降六賊. 能捨眼賊 離諸色境 心無固著 名爲布施 能禁耳賊 於彼聲塵 不令縱逸 名爲持戒...

[해설]

달마 스님은 육도를 육바라미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육바라미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안·이·비·설·신·의 대상이 끊어져야 합니다. 육적은 눈을 통해 보고 잘다 나쁘다 분별하고 끄달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본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면 끄달리지 않지만 우리는 걸만 보고 있으니 견물생심에서 육심이 일어나고 배척하게 되며 마음이 탁해 집니다. 마음이 여섯 가지 기관을 통해서 끄달리던 마음이 나빠지기 때문에 육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눈을 통해서 속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여섯 가지 기관을 통해 마음을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육적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본질을 보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져나가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겠지요? 우리가 보는 사물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본질이 모두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계도 역시 모양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을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생명·에너지로 돼 있습니다. 부처님은 3천년 전에 "우주는 마음으로 돼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계는 역시 모양이 없으니 까 한 몸이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를 마음으로 본다면 눈으로 봐도 본 것이 아니고, 귀로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겠지요? 성

철 스님께서는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고,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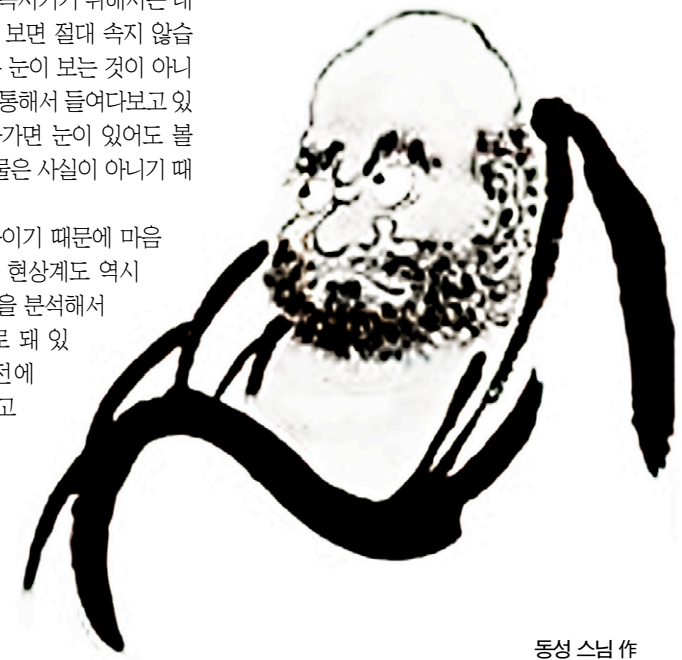
우리 본래 마음을 부처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계도 부처님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 관세음보살님이요 들리는 소리가 다 진리라는 말입니다. 성자의 눈으로 보면 모두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자는 되지 못했지만 보이는 대상을 모두 부처로 본다면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없겠지요? 마음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마음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겠지요?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국토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 할 때 마음이 안·이·비·설·신·의를 통해 색·성·향·미·촉·법에 집착 하면서 온갖 나쁜 마음을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섯 기관을 드나들면서 나빠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육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을 항복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보이는 대상을 마음으로 부처로 볼 수만 있다면 육적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면 생각이 일어나지만 대상을 부처로 보고 마음으로 본다면 생각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 때문에 알면서도 끄달려 갑니다. 습을 놓기가 정말 힘들입니다. 마음으로 보고 부처님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욕심이 없어서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남에게서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이를 성철 스님이 "들리는 소리가 다 묘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로 본다면 모든 소리가 부처님 묘음이 됩니다. 묘음이라면 대상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지제라 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동성 스님 작

지구촌 천지개혁을 이기려면 팔신공 도천명 받은 육경신 도통으로 이시대에 다시 태어나는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천지공사 경인년 천안통 대법회

좌좌우우향이 진솔축미로 바뀌고 산악문명이 해양문명으로 바뀌는 진법으로 지구촌에 천지개혁이 오고 있다. 이 시대에 경신도통 일민이천 도통군자들에게 새로운 중생제도법을 본 태일대사는 진인에게만이 생명을 다룰 수 있는 하늘에 감주어진 진법을 전하노라

◆경신도통이란 말하지 않는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죄와 업을 벗지 못하고 상에 빠져 음과 양상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진광으로 삼시구충의 원뿌리를 뽑아 눈으로 보는 세상을 초월 말이 없는 생명의 빛으로 탐진치 곁집을 벗어 음과 양 산과 바다가 바뀌는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대한민국이 전세계를 지배해도 금묘가 시작되는 경인년 양력 3월 10일, 11일 자시와 오시에 天福 大運을 받는 경신일 태양진광진법인 소울을 소리나는 곳에 도통군자들의 하늘에 뜻을 받는 천안통 도통법이 경신인 것이다.

천지공사 소 울음소리 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해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대통 팔지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건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십년 수행한 공덕보다 나은 수행인 것이다. 전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 운집하여 평화시대가 시작되는 대법일법에 일민이천 도통군자 동참하여 주인공이 되고 이 법은 상생의 인연과 덕을 쌓아야 수행하는 것이며, 달마중 종단은 생 활불교 거사불교, 보살불교, 대중불교 머리끝과 승복에 구애 받지않고 남녀노소 연령제한없이 불법홍포에 뜻이 있고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입증을 언제라도 환영.

◆특별 금년 경인년은 해도금묘 광명의 해이므로 결혼과 가정과 직장 및 조상의 취직 도통군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수행마장, 기도마장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상생의 죄업을 벗고 약한운과 일체고객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업장소멸로 열어주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공덕과 행운.

대운을 열어 막힌 운과 자금이 회전, 지혜 총명하여 병마가 침입하지 못하며 선신이 도와 도박, 음주, 담배 금연이 되어, 사주팔자가 변하여 부귀장수 한다. 직장, 사회, 가정에 화합이 잘 되고 삼계팔란 관계, 인간 구실이 일체고통고객이 소멸되고 사고를 방지하며, 잡신에 병의된 조상, 모태영가, 해원상생으로 만법을 다스리는 스승이 되는 도인이 된다.

천지공사 육경신수행이란? 천하의 비밀 법에 감주어진 운명을 비껴갈 수 없는 기구한 팔자를 업장소멸하여 자신의 운명을 조종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수행인 것이고 천지공사인 것이다.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천안통을 열어 상통천하달마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고,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천지공사 천안통 득도하는 법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 봉행, 금년 유행되는 신종플루 전염병과 그 어떠한 병도 다스리는 의통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부산 금정구 장전3동 천 통 사 보현스님 합장 휴대폰 051)635-3110 / 010-8533-1601

세계불교달마중 천지공사 경신도량 수행처 태양의집 천통사 범당인연사, 맞이공양사, 수행처, 인연사 동참차. 달마중 입증 환영. 총신 연구소 서면 봉양 2리 259번지 ☎041)867-7763 / 010-7728-6707

- 입제: 양력 2010년 3월 10일(음 1월 25일 수요일)(해시)
- 해제: 양력 2010년 3월 11일(음 1월 26일 목요일)(해시)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락대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쪽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용조미륵달마 경신도통회 일민 세계불교 달마중 충 본산 태일합장

“미래가 살아있는 교육” “실력이 살아있는 교육” “불교가 살아있는 교육”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종교지도자 불교학과정 1기생 모집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파워 프로그램 불교적 리더십과 국제적 종교경영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 양성

본 과정은 21세기 들어서면서 환경이 급변하고 종교적 사조가 변질되어가는 사회적 상황에서 실력과 불교적 지도력을 겸비할 수 있는 정치전문대학원 종교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준비된 학습 Program을 통하여 종교적 지도력 제충전과 조직의 지도자의 글로벌 리더이자 불교인 파워엘리트 네트워크의 주역으로 보람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모집인원 100명
모집대상 스님, 재가자
교육기간 1년 - 2학기(봄, 가을)
교육일시 매주 화요일 17:00 ~ 20:30
원서접수 3월 14일까지
제출서류 1 입학원서, 재직증명서 각 1통, 대학(불교학)교 최종졸업증명서, 사진(반명함) 3매
합격자 통지 1 서류심사 후 합격자 개별통지

특전
· 총장명의로 정치전문대학원 종교지도자 불교학 졸업증서
· 화엄학당 건강원 인소자격 부여(각성 큰스님)
· 조계종 및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 승려, 종무원, 공무원, 정보 투자기관 임직원, 사회교육직, 불교교육직, 불교인론인, 불교계 사회 복지기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강의 내용
각성 큰스님 및 저명 교수 초빙
불교적 주역/불교지도자 리더십/인도불교철학/비교종교/사회헌법과 불교관계법/지도자 스피치/화엄경 및 법화경/사찰경영 및 행정(포교전략)/특강

선교경전연구회 회장 법경

(120-70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71번지 경기대학교 대학원 4층 46호 문의 02-312-2400 010-4242-7070